친이계 "세종시 수정안 수도분할 중대 사안"

야·친박 "국가 안위 해당 안돼… 분열만 초래"

정치권, 국민투표 놓고 논란 확산

MB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여권 내에서 세종시 수정 국민투표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국민투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수정문제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투표 찬성론자들은 행정기관 9부2처2청의 이전을 국가안위와 직결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국민투표 반대론자들은 최근의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를 의회 민주주의의 보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국민투표 남발 및 대의 민주주의 원칙 훼손을 막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정치권내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국민투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법조 출신의 친이계 박준선 의원은 이날 "세종시 문제는 수도 분할·이전과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국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권리 행사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보완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국가안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엄청난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세종시 논란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세종시 수정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와 관련,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세종시 수정 문제는)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책임정당으로서 그 정도는 해내야 한다.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며 "비록 아직 결론은 못냈지만 며칠동안 연속 토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박지경 기자 tuim@

"금호타이어 긴급자금 투입하라" 양형일·윤난실·정찬용·전갑길(오른쪽부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전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금호타이어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동의 관계없이 긴급자금 우선 투입 등을 내용으로 한 합동의견서를 채택했다. 또 이들은 금호타이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전, DJ센터 '에너지 전시회' 참가

한나라 이정현 의원 숨은 노력 있었다

광주·전남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발 벗고 나서는 이정현 한나라당의 의원의 남다른 애향심이 정치권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한전 측은 오는 17일 광주 DJ 컨벤션 센터가 주관하는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에 참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당초 한전은 오는 5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DJ 컨벤션 센터 전시회에는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정현 의원의 전방위 공세에 손을 들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한전 측 고위 관계자에게 "한전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가는 것이 맞느냐"며 은근히 압박하는 한편 "부산과 대구의 컨벤션 센터는 미어 터지는 반면 광주 DJ 컨벤션 센터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곡하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한전 측이 난색을 표시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자 "나를 18대 국회에서만 볼 것 같으냐"며 밀어붙인 끝에 결국 한전의 DJ 센터 전시회 참여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측 관계자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지역의 조그만 일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두 손을 들었다"며 "이번 전시회 참여는 이 의원의 남다른 애향심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박광태 "국비 3조 프로젝트 발굴하자"

박광태 광주시장은 2일 "오는 2013년 국비지원사업 3조원, 예산 5조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박 시장은 이날 정례조회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경기장 확보와 교통망 등 제반시설 준비 철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목표 달성, 청렴도 1위 유지를 위한 실·과별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민주 혁신후보 단일화 앞장"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중도 포기설' 등 악의적인 음해와 모함을 일삼는 등 흑색선전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흑색선전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혁신적인 미래지도자를 뽑기 위해 경선을 앞두고 정동채·정찬용·양형일·전갑길 후보 등 참여정부 인사와 광산지역 인사들을 비롯한 민주혁신 후보 간 단일화 논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일 오늘 자서전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인 김문일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은 3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에벌루션웨딩컨벤션에서 자서전인 '앙스트불뤼테'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후보는 자서전을 통해 젊은 시절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와 감독을 지내면서 세계 100여개 국가에 국위선양을 했던 일과 현대그룹에서 경영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쌓은 경험 등을 담담하게 적고 있다.

최희동 선거사무소 개소식

민주당 최희동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4일 오후 3시 북구 용봉동 호남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재균 국회의원, 이용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및 지역인사, 지지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시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김화진 "남구에 음식高 설립 추진"

김화진 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제3의 생명음식' 김치의 세계화와 한국 전통음식 조리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 콩 종합센터가 위치한 남구에 한국 전통음식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 전통음식 고등학교는 김치·장류·한식과 등 3개 학과로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이미 민간자본 100%를 투입할 설립의향자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환 '공명선거 서약식' 제안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은 2일 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명선거 공동 서약식'을 제안했다.

김 전 교육감은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6·2선거는 공천이 없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와 정당공천을 통한 선거로 확연히 구분될 것"이라면서 "교육계의 선거 만큼은 교육자적 양심으로 깨끗한 선거전을 펼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출판기념회 성료

정재수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2일 봉선동 겨자씨교회에서 자신의 자서전 '행복한 동행'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강운태·김재균 국회의원과 고재유 전 광주시장,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행복한 동행' 자서전을 통해 남구의 오늘과 미래를 진단해보는 한편 주민들과 함께 남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영월, 시교육감 선거 불출마

6·2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윤영월 광주예술고 교장이 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교장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광주 교육 발전에 더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현 광주 무등중 교장도 최근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고, 4년 뒤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권일·윤현석·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바다공인중개사
☎ (063)581-5909
핸 010-8004-5900
(진복 서해안, 새만금 전문업소)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까지의 투자 벨트형성
▶펜션건물(투자,직영,임대)
• 대지 300평 건물 140평
: 매가 7억
- 직영시 월 수입
최저 1300만원 이상 발생
- 융자 2억 이상 가능
▶투자용 펜션 용지
• 150~300평
: 평당 50~100만원
-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임수를 갖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으로 투자 최적합.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 150~300평
: 평당 25만~35만원
-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하고 한가로운 전원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새만금 관광시대 입박으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적기!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위 치◉
화순읍 전대병원만년산부근
광주에서 10분 거리 8차선도로 확장공사중 도보로 전대병원 편의시설 이용가능
만연산, 무등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좋고 편안한 전원생활 최적지 입니다. 황토 흙벽돌 100평 사용하고 습도조절, 온도조절이 뛰어나며 수면후 만성피로 회복 아주 좋고 주인이 직영으로 관리를 생각하여 정성들여 짓은 집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퇴직자 최적합)
매매가 : 6억 8천만원
(조정가능)
• 대지 : 250평 • 건평 : 73평
* 지하 1층, 지상 2층(복층)
* 주차 고급 자동문 시설
차량 2대 가능
* 최신 cctv 8대 설치
* 방 4개/욕실 3개
• 난방시설 : 심야전기
• 조경 : 잔디, 소나무
• 건축 준공 : 2009년 10월 30일
• 건축 구조 : 철근 콘크리트, 고야 슬라브, 한옥 전통기와
• 외부 구조 최고급 수입 대리석 시공
• 실내인테리어
흙황토 벽돌, 흙황토 바닥
편백나무, 소나무 미송
* 2층 방가루 테라스 12평
(편백나무, 스기목 시공)
◉주인직거래◉
꼭하실분만전화요망
☎011-634-4114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종목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좌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생 등 - 개강 : 3월 2일
- 현재 접수 中, 선착순 00명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병원,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 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입영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의정보고서
명함
대형현수막
간판/현판
배포
공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월 충전료 5,000원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딜러모집
농기계 관련 사업자
유사업종 경험자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월 전기료 약 5,000원 정도로 경제적인 적용
• 휘발유 엔진식 발전기는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품의 국산화로 안정적인 A/S가 가능합니다.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장기저리융자,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
• 충전시 40km운행(적재량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믿음과 화합으로 번영하는 한라그룹
한라웰스텍(주) HALLA Welthtech Corp.
구입문의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